

# 서점가 달라이라마 '열풍'

### 강연록·명상록 등 잇달아 번역

### 기존 출판물도 인기...방한 가능성 영향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제14대 달라이라마의 방한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출판계에서는 이미 달라이라마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들어 그의 강연록이나 명상록을 담은 책이 잇따라 우리말로 옮겨지는가 하면, 예전에 출간된 책을 찾는 독자들의 손길도 부쩍 늘고 있다.

도서출판 문이당은 98년 미국에서 출간된 달라이라마의 명상록 <평온으로 가는 길-일일 명상(The Path to Tranquility-Daily Meditations)>을 우리말로 옮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를 펴냈다. 305개의 짧은 단상들이 일기 형식으로 묶여진 이 책은, 달라이라마가 인류와 나누고자 하는 평화와 자비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자비심이란 물질적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명상록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그러한 삶의 지혜들이다.

이에 앞서 출간된 <아름답게 사는 지혜>(정우사)는 달라이라마가 93년 5월 영국 런던의 웰즐리 성당에서 강연한 내용을 옮겨 엮은 것이다. '티베트에서 온 자비의 힘'이란 주제로 출간된 이 책에서 그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분노와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을 자상하게 일러준다. 또 육바라밀과 연기법, 그리고 공사상 등 불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와 준비 축소, 인구 조절 등 인류의 당면과제와 티베트의 독립문제와 관련한 그의 입장도 눈여겨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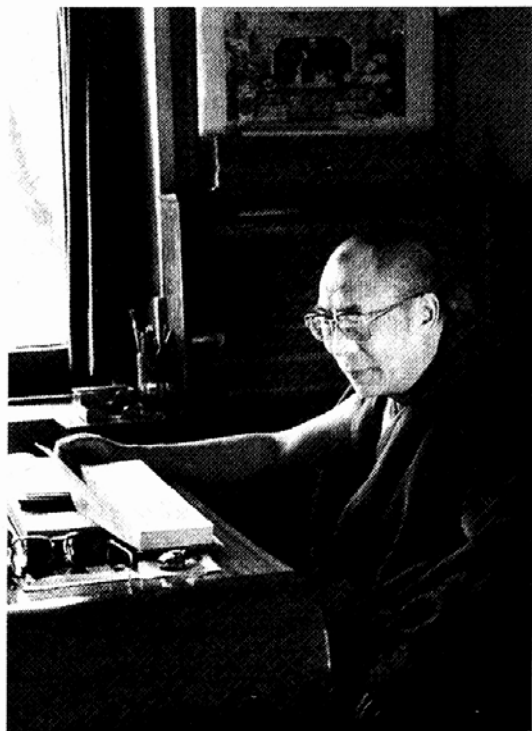
지난해 출간돼 화제를 모았던 <달라이라마, 예수를 말하다>(나무심는사람)와 <달라이라마가 설법한 37가지 수행법>(정우사)도 다시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위즈덤 출판사에서 <선한마음>(The Good Heart)으로 출간된 <달라이라마, 예수를 말하다>는 94년 9월 영국 런던 미들섹스대학에서 개신교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약성서 4복음에 대해 강연한 내용이다. <달라이라마가 설법한 37가지 수행법>은 74년 보드카에서 티베트 불교수행의 입문서 <보살의 37수행법>을 3일 동안 설법한 내용이다. 즉 이 책의 핵심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살이 닦아야 할 마음가짐과 수행법이다. 깨달음을 얻은 분들에게 어떤 경의를 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근기별 수행법을 재미있게 살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 달라이라마 지혜의 큰 바다>(동쪽나라), <티베트 성자와 보낸 3일>(서울출판), <달라이라마, 티베트에서 온 편지>(해움), <티베트 나의 조국이야>(정신세계사),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예문당) 등이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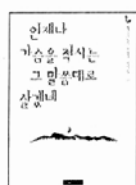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1935년 티베트 타스커에서 태어난 텐진가초는 1940년 달라이라마에 즉위, 1989년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 새로운 책



▲언제나 가슴을 적시는 그 말씀대로 살겠네(법성 스님 지음, 지혜의 나무)= 스님이었던 어머니의 유지를 따라 48세에 불문에 귀의한 이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보살행을 펼치고 있는 법성 스님이 미수를 앞두고 펴낸 자전적 고백록. 스님의 인생역정을 진솔하게 실고 있는 이 책은, 수행과정에서 듣고 배우고 또 직접 실천한 법문 등으로 엮여 읽는 이에게 삶에 대한 감동과 부처님의 진리를 알게 한다. 값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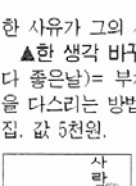
▲머무는 곳 없이(고산 스님 지음, 들녘)=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고산 스님이 예로부터 전해지는 설화들을 바탕으로 삶의 진리를 탐구한 책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 선에 대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즉 선을 단순한 명상술로 여기거나 불교신자들만 근접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등의 잘못된 해석들을 짚어내고 있다. 값 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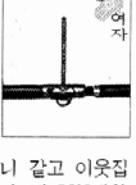
▲선암사(이계표, 천득염, 최인선 공저, 대원사)= 유명사찰을 꾸준히 소개해 온 대원사 '빛깔 있는 책들 시리즈' 사찰편 12번째. 선암사의 대표적인 철불과 보탑, 그리고 부도 등의 유물을 비롯 현존하는 42동의 건축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특히 사계절 풍경에 담은 사진이 함께 실려 있어 읽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값 4천8백원.



▲도장포에 사랑이 보인다(박준영 지음, 동학사)= 시인 박준영(SBS 기획편집본부장)씨의 시집. 불교에 기초한 동양적 사유가 그의 시 곳곳에서 드러난다. 무(無)와 공(空)의 사상을 빌어 구현한 인간과 삶, 세계와 우주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가 고조된다. 즉 인생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사유가 그의 시 내면에 흐르고 있는 뼈대이다. 5천원.



▲한 생각 바꾸면 이렇게 편할 것(성재도 지음, 날마다 좋은날)= 부처님과 옛 스님들의 가르침 중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권할만한 가르침을 골라 모은 명상집. 값 5천원.



▲사람의 여자(정명혜 지음, 다지리)= 이 땅의 어머니들이 들려주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 중광 스님의 예술세계를 열어준 박해연 씨, 병신춤으로 널리 알려진 공옥진 씨, 광주학생운동의 기록적인 소녀화를 결성했던 박희희 씨 등 25명의 어머니를 삶이 2부로 나눠 소개돼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내 어머니 같고 이웃집 어머니 같은 우리들의 어머니 이야기이다. 값 7천5백원.

## 지계는 수행 첫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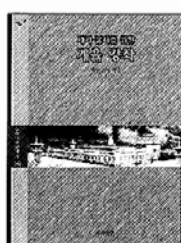
###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재가불자를 위한 계율강좌'

지계는 수행의 첫 단계이자 깨침을 향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바른 생활이 되지 않으면 바른 선정, 바른 지혜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계율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재가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생활불교편 두번째 권인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강좌>는 '계율'의 참된 의미와 재가불자들이 지켜야 할 여러 계율을 통해 이 같은 의문에 답하고 있다.

모든 계의 기본인 삼귀의계를 비롯 오계, 팔관재계, 십선계, 보살계 등을 재가 불자의 윤리적인 측면과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전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정리했다. 또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을 비롯 보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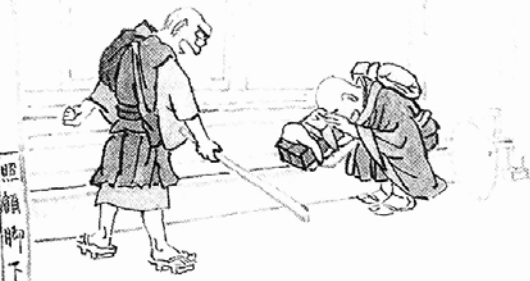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 더불어 살기 위한 열네 가지 계율, 서른여덟 가지 행복의 길 등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도 수록해 지계를 생활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인총림 울림장 혜능 스님이 엮은 이 책은, 재가자들이 불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이끌어주는 신행서로도 손색이 없다.

역자의 말처럼 불자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 도적들을 대비해 집 주위에 담을 치는 것과 같다. 불공을 울리고 기도하는 일도 불자의 도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자의 일이다. 이런 점에서 깨침의 첫 걸음인 지계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계생활은 그 중요성에 비해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속제로 남아있다. 이 책은 그 속제를 푸는데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으로 보인다. 값 6천5백원.

김중근 기자



## 일본 선방생활 엿보기

### '선방의 아침'

### 입문부터 총림행사까지

일본의 선방(선당)생활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선방의 아침>(들꽃누리)이 나왔다. 이 책은 일본의 선승 좌종의 명 스님의 선방일기로 선당 입문부터 총림의 연중행사까지 자세히 적고 있다. 이와 함께 선방의 일상을 그린 96장의 삽화도 들어 있어 이해의 폭을 넓혀 준다.

일본에서 선종의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종문이나 일반 학교를 졸업 후 반드시 총림에서 좌선수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입문과정부터 만만치 않다. 입방 원서와 서약서들을 총림에 제출하고 현판에 붙여놓아 입방을 간청한다. 이때 총림에서는 "여러 면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돌아가 주십시오"라며 서류를 되돌려 준다.

그렇다고 물러서면 안된다. 무릎 꿇고 계속 부탁해야 한다. 이렇게 하루정도의 출입시험과정이 끝나면, 또다시 뜰에서 끊어났다가 시작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객사로 들어가 벽을 향해 좌선을 해야 한다. 이는 지루함과 고독과의 싸움이다. 선승들이 이보다 더 긴장하는 것은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는 시선이다. 선방생활을 하기 위한 5일 여 동안의 과정은 '입문 작법'이라 불릴 정도로 엄격하다.

일본 선당의 하루는 용맹정진(대접심)이외에 낮에는 노동이나 탁발을 하고, 남은 시간에는 경전을 본다. 오후 3시를 방참(放參)이라고 하여 모든 일과가 끝난다. 취침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는 자유시간이다. 외출도 가능하다. 또 2·5·7·10일에는 강의, 1·3·6일에는 탁발, 4·9일에는 사찰이 여의치 않으니 돌아가 주십시오"라며 서류를 되돌려 준다.

값 9천5백원. 김중근 기자

## 젊은 시인 14명의 사찰에서 '시인들이 절에 가면'



시인들이 절에 가면

시인들의 시심 속에 깃든 산사(山寺)를 수필로 풀어낸 <시인들이 절에 가면>(프레스21)이 나왔다. 이 책에는 신현림, 장석남, 원재훈, 이홍섭 등 80년대 후반에서 90년 중반까지 등단한 14명의 젊은 시인들의 글이 실려 있다. 이들이 찾아가는 곳은 부석사, 낙산사, 실상사, 감은사 등 한국불교의 법당이 녹아 있는 고찰들이다.

그러나 이 책에는 사찰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시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과 독특한 불교관을 엿볼 수 있다. 즉 젊은 시인들에게 있어 사찰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시와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짚어 볼 수 있게 한다.

시인 권대용 씨의 에세이 '전등사에 가면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를 보자.

"삼 자체가 불투명하고 막막하고 내가 낮설고 불안해질 때, 나는 내 마음에 지은 고요한 절 하나를 꺼낸다. 내 마음의 법당에 엮드려 나에게 3천 배를 하다 보면 3백 배에 이르기도 전에 어느새 경정이 찾아온다." 권 시인에게 있어 부처님과 수행자 그리고 신도 등은 모두 자기 자신이다. 물론 사찰도 그의 마음 속에 있다.

이밖에도 이 책에 실린 글 속에는 젊은 시인들의 삶에 자리잡은 '사찰'이라는 공간이 의외로 넓고 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값 6천5백원.

김중근 기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적멸의 즐거움	정 유 우 리	
3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례	
4	티베트 해탈의 서	파드 샬레	정신세계사
5	그늘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전 재 성 선 재	
6	위빠까나 성자 아판 돈	김 열 권 불 공	
7	지장신왕 지장기도법	김 현 준 효 립	
8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9	만행-해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립 원	
10	영가전도	우 룡 효 립	

도서 안내:(02)737-0695

**Hyakujo, The Everest of Zen**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8,500원

깨달음의 빛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곳에서 우주 전체가 열릴 것이다.

백장은 선원(禪院)을 최초로 정비한 것으로, 대주는 돈오(頓悟)의 사상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선사를 일본의 시인인 바쇼의 황고도 그림 같은 시와 함께 그려놓았다.

**The Great Secret**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1,000원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 순종하라

이 강의는 까비르가 신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열 편의 시에 대한 해설이다. 그는 말한다. 신의 얼굴을 찾지 마라. 신은 어떠한 것이든 좋다. 산은 사랑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

**The Hidden Harmony**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만이 영원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가장 심오한 영혼이 진정으로 보기 드문 것이다. 그에게는 삶에 대한 어떠한 이론도 없으며 그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다. 그가 역설적인 삶의 문으로 안내할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만트라 秘典 I	06. 법구경 I	09. 만트라, 더없는 깨달음	13. 대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조주	21. 내 사랑 인디아
02. 만트라 秘典 II	06. 법구경 II	10. 심우도	14. 대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남전	22.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03. 만트라 秘典 III	07. 금강경	11. 신심당	15. 轉, 빈 거울에 담긴 노래   미조	19. 법의 연꽃   이규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04. 만트라 秘典 IV	08. 반야심경	12. 화안 언꽃집미대사 강론	16. 마음을 버려라   임재	20.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24.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의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 taelpub@chollian.net  
tel: 927-2631-4 fax: 924-3236

라이프타임 리플